

아가의 사랑 프레임 재구성: 프레임 의미론을 통한 은유적 인식 전환

이유미(루터대학교)

1. 서론: 사랑은 무엇으로 인식되는가?

아가는 장르와 저작 목적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유독 활발한 책이다. 이러한 논쟁이 지속되는 데에는 두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본문에 드러나는 예로틱한 표현과 이를 포함하고 있는 성경의 종교적 성격 사이의 긴장 때문이다. 둘째는 본문 전반에 걸쳐 사용된 풍부한 은유적 시어가 텍스트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어 해석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는 서로 맞물려, 연구자들로 하여금 본문의 문학적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저작 목적을 해명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그러나 ‘장르’라는 분류 자체가 현대적 산물임을 고려할 때, 아가를 특정 장르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는, 이 시가 무엇을 노래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¹ 더 나아가, 그

1 조내연은 그의 논문에서 “저자의 의도(intention)라는 말은 저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

것이 어떠한 문화적 맥락에서 수용되어 왔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아가가 지닌 언어적 표현 방식과 그 수용 과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시작한다. 첫째, 아가는 무엇을 노래하는가? — ‘사랑’이다. 이는 학문적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둘째, 아가는 ‘사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 풍부한 은유를 통해 감각적이고 심층적으로 표현한다. 결국 우리는 아가를 연구할 때, 사랑과 사랑에 대한 은유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인지적 프레임을 통해 형성되고 표현되는지를 아가를 중심으로 탐색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다룬다. 첫째, 아가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은유적으로 형상화하는가? 둘째, 이 은유들은 어떤 근원영역(source domain)에 기초하고 있는가? 셋째, 이러한 은유가 형성하는 사랑 프레임은 어떻게 구성되며, 아가는 그 프레임을 어떻게 수용하거나 확장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s, CL), 그 중에서도 프레임 의미론(frame semantics)을 중심 이론으로 채택한다.

인지언어학은 현대 언어학 내에서 ‘의미’를 중심에 두는 광범위한 흐름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에바 돔브로프스카(Ewa Dąbrowska)는 인지언어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세 가지 중심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한다. 첫째, 언어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존재한다. 둘째, 인간 언어에 대한 설명은 언어학 외에도 마음과 뇌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부합해야 한다. 셋째, 문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

고, 동시에 독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을 때 사용 가능”하며, 성경의 책들은 위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 조내연, “지평 융합을 통한 인식론적 전환: 구약성서 읽기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신학사상』 200집 (2023, 봄), 18.

용을 통해서 출현하고 학습된다(사용 기반 문법 usage-based grammar).²

다시 말해, 인지언어학은 언어가 단순히 드러난 표현(표면 구조, surface structure)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개념적 구조, 인지적 체계, 문화적 스키마(schema, 도식), 문화적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한다. 즉, 이는 단순히 언어적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전해지면서 같이 전달되는 문화적 의미, 공통적으로 신체화되고 더 나아가 맥락에 따라 변이하는 의미를 함께 중요하게 고려한다.³

인지언어학 가운데 특별히 프레임 의미론은 단어와 구절, 장면이 불러일으키는 문화적-경험적 배경지식의 구조를 찾는 것이다. 조지 레이코프는 “프레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라고 정의한다.⁴ 그렇기에 프레임을 바꾸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이는 곧 사회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프레임을 재구성하고 기존의 프레임을 넘을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것이

2 Ewa Dąbrowska, “Cognitive Linguistics’ seven deadly sins,” *Cognitive Linguistics* 27(4), (2016), 479-480.

3 졸탄 쾨브체시, 「은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은유 속 맥락의 역할」 (유석훈/김동환/나익주 옮김),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36-51. 원제는 Zoltán Kövecses, *Where Metaphors Come From: Reconsidering Context in Metaphor*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쾨브체시는 은유 사용에서 몸(신체화)과 맥락이 수행하는 역할에 관한 논의를 한다. 몸(신체화)은 모든 인간의 특징, 공통된 경험으로 축적된 것으로서, 잠재적으로 보편적일 수 있다. 반면 맥락은 이러한 신체화된 의미에 변이를 주는 주요한 추진력이 된다. 쾨브체시는 몸과 맥락의 영향력이 은유를 만들어 내는 데에 서로 충돌하는 힘이 아니라, 은유를 발생하게 하는 중요한 근본 역할을 한다고 제안한다.

* 졸탄 쾨브체시/졸탄 쾨백세스의 한국어 표기는 역자마다 상이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졸탄 쾨브체시’로 표기하고, 참고문헌에서의 표기는 역자의 표기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조지 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진보와 보수, 문제는 프레임이다」 (나익주 감수/유나영 옮김), (서울: 와이즈베리, 2015), 10. 원제는 George Lakoff, *The All New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White River Junction, VT.: Chelsea Green Publishing, 2014).

일반 대중의 담론 속으로 들어올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⁵

결국 이 방법론의 핵심은 은유가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활성화’되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레임은 시대별로 ‘리프레임’될 수 있으며, 시대적 해석에 따라 새로운 개념적 틀로 해석될 수 있다. 아가가 바로 그러한 책이다. 아가에 등장하는 풍부한 은유는 전통적인 은유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리프레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아가에서 제시되고 있는 프레임과 리프레임을 소개하고, 이 새로운 프레임으로 인해 해석적 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해 어떠한 해석적 확장을 꾀할 수 있을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개념적 은유와 프레임 의미론

기존의 전통적 은유관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은유를 일상어이기 보다는 수사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특수한 수사 기법으로 간주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은유가 어떤 특별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믿었기에, 은유적 표현에 대한 해석과 이해는 천재성을 지닌 시인이나 능변가들만이 유추해 낼 수 있는 특별한 영역으로 생각했다.⁶ 은유로 가득한 아가에 대한 해석에서도 이러한 전통적인 은유관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견해는 아가의 에로틱한 은유들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을 회피하게 만들었고, 대표적으로 오리게네스는 이를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이들이 읽지 말아야 할 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⁷

5 위의 글, 11-13.

6 나익주, 「조지 레이코프」(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ix, 2.

7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안소근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4), 856. 원제는 Gianni Barbiero, *CANTICO DEI CANTICI: nuova versione*,

반면, 1980년대 등장한 인지언어학은 언어를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밀접하게 연결된 인지적 구조로 본다. 조지 레이코프는 *Metaphors Live By*에서 대부분의 인간 사고가 은유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개념적 은유 이론’(conceptual metaphor theory)으로 정립하였다.⁸ 즉, 이것은 언어가 단순한 형식적 체계가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사고하며 경험하는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은유를 더 이상 시적 장식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핵심적 틀로 바라보게 하였다. 이는 보통 ‘A는 B다’의 공식을 가지고 있다. A 영역의 개념을 B 영역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고 구조를 사람들은 주로 무의식적으로 발현하며, 이 인지 구조가 바로 은유적 사고 패턴이다.⁹ 개념적 은유 이론에서 A를 ‘목표영역’(target domain)이라 하고, B를 ‘근원영역’(source domain)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시간은 돈이다”라는 은유에서 목표영역은 ‘시간’이고 근원영역은 ‘돈’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은유는 이해하고자 하는 추상 개념을 보다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영역으로 개념화하여 사상(寫像, mapping)한다.

‘프레임 의미론’(frame semantics)은 언어학자 찰스 필모어가 제시한 이론으로,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장 외적 문맥, 특히 화자의 배경 지식과 개념적 틀(frame)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¹⁰ 목표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된 근원영역은 단순히 단어로만 이해되지 않는다. 이 근원영역 안에 들어 있는 ‘구조화된 경험’이 개념을 형성

introduzione e commento (Milan: Paoline Editoriale Libri, 2004).

8 G. Lakoff and M.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3-6.

9 위의 책, 7-9.

10 Ch. J. Fillmore, “Frame Semantics,”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lected Papers from SICOL-1981* (Seoul: Hanshin Publishing Company, 1982), 111-112.

한다는 것이다. 이 구조화된 경험의 끝 ‘프레임’이다. 화자는 그 프레임에 기반한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인식 방식을 독자 혹은 청자에게 암시하게 된다. 아가의 예를 들면, 시인은 사랑에 대해 노래할 때 근원영역으로 전쟁과 그에 기반한 단어들, 예를 들어 깃발, 용사와 같은 요소들을 사용함으로써, 이 시를 읽는 독자는 자연스럽게 정복자형 사랑을 그리게 된다. 이러한 프레임 요소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맥락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변화의 요청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리프레임 된다.¹¹ 이러한 은유의 확장은 레이코프에 따르면 시적 은유의 힘이다. 레이코프는 시인들도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상의 은유를 사용하지만, 시적 은유의 특별함은 그 은유를 창조적인 방식으로 확장하고, 정교화하고, 의문시하고, 조합하는 데서 나온다고 주장한다.¹²

199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이론은 구약학 연구에 도입되기 시작했다.¹³ 이를 통해 히브리어 사전 재구성이나, 구약의 특정 본문의 분석, 그리고 히브리 성경 속 정서 표현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¹⁴ 이러한 연구

11 줄탄 코브체시는 그의 책에서 은유의 변이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은유 내의 변이가 일어나는 곳은 심층팔구 역사적으로나 발달적으로 일어나고, 또한 문화 사이에서나 문화 내에서, 개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결국 은유 내의 변이가 일어나는 것은 역사, 문화, 사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줄탄 코브체스, 「은유와 감정: 언어, 문화, 몸의 통섭」 (김동환, 최영호 옮김), (서울: 동문선, 2009), 110-112. 원제는 Zoltán Kövecses, *Metaphor and Emotion: Language, Culture, and Body in Human Feel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12 나익주, 37.

13 Mark Z. Brettler, *God Is King: Understanding an Israelite Metaphor*, JSOTSup 7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9). 마크 브렛틀러는 레이코프와 존슨의 은유이론을 찾아 처음으로 구약 연구에 적용하고, 그들의 은유도식 방법을 사용했던 학자이다. Joel B. Green and Bonnie Howe, “Introduction,” Bonnie Howe and Joel B. Green (eds.), *Cognitive Linguistic Explorations in Biblical Studies* (Berlin: Walter de Gruyter, 2014), 1 에서 재인용.

14 Reinier de Blois, “Towards A New Dictionary of Biblical Hebrew Based On Semantic Domains,” 「성경원문연구」 제8호 (2001), 264-296; Pierre Van Hecke, *From Linguistics to Hermeneutics: A Functional and Cognitive Approach to Job 12-14*, Studia Semitica Neerlandica, vol. 55 (Leiden: Brill Academic Pub, 2010); Ellen van Wolde, “Sentiments as Culturally Constructed Emotions: Anger and Love in the Hebrew Bible,” *Biblical*

중 아가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아가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도 있다.¹⁵ 이 논문은 아가에서 나타나는 성적 은유와 신-인간의 관계에 대한 간략한 연구를 제시한다. 아가는 단순한 결혼의 법적 관계를 넘어서, 신체적 성에 관계를 묘사한다. 성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의 은유는 일상적 예매나 신앙적 순응과 쉽게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아가에 대한 해석이 알레고리 해석이나 신비주의적 해석에 머물러 왔다는 저자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고 의미가 있다. 아가의 해석이 믿음 공동체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이유가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의 성에 대한 인식(프레임)과 아가의 성애적 표현(리프레임)이 많은 부분 대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아가가 왜 그런 방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는가만을 다루고, 아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제시되는 새로운 신학적 의미와 해석의 가능성에 대해서 더 제시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지언어학은 언어의 이면에 존재하는 개념적 구조를 분석하는 학문이며, 프레임 의미론은 특정 단어와 표현이 호출하는 배경지식과 인지적 틀에 주목한다. 이러한 이론은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 개념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Interpretation 16 (2008), 1-24. 이 외에 인지언어학 방법을 적용한 구약연구들에 대해서는 Bonnie Howe and Joel B. Green (eds.), *Cognitive Linguistic Explorations in Biblical Studies* (Berlin: Walter de Gruyter, 2014); J. Van der Merwe, “Biblical Hebrew and Cognitive Linguistics: A General Orientation,” Aaron D. Hornkohl and Khan Geoffrey(eds.), *New Perspectives in Biblical and Rabbinic Hebrew* (Cambridge: Open Book Publishers, 2021), 641-696. <https://books.openedition.org/obp/20315>를 참고하라.

- 15 Eve Sweetser and Mary Therese DesCamp, “Motivating Biblical Metaphors for God,” Bonnie Howe and Joel B. Green (eds.), *Cognitive Linguistic Explorations in Biblical Studies* (Berlin: Walter de Gruyter, 2014), 18-19.

아가는 전통적인 사랑의 은유를 풍부하게 수용하면서도, 그 안에 새로운 의미 구조를 삽입하고, 기존 은유를 재배열하거나 전복하는 방식으로 사랑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아가 본문에 나타나는 사랑 은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은유들이 기초하는 근원영역과 프레임 구조를 통해 나타나는 사랑에 대한 인지적 구성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3. 아가에 나타난 ‘사랑’의 근원영역과 프레임 분석

본 장에서는 아가 본문에 나타나는 사랑의 개념 은유들을 분석하고, 이 은유들이 어떤 근원영역(source domain)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개념적 은유 이론과 프레임 의미론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단순한 시적 장치를 넘어서는 인지적 사랑 프레임의 구성 방식을 분석한다.

엘렌 판 볼데(Ellen van Wolde)는 인지언어학을 사용하여 히브리어 성서 속 ‘화’와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저자는 구약성경의 ‘사랑하다’(אהב)의 용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대부분 남성이 주어이고, 여성은 사랑의 대상이 되며, 사랑은 종종 성관계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성관계→사랑→결혼).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로맨틱한 상호성은 없으며, 오히려 사랑은 ‘위계적 관계’ 안에서 일방적인 모습을 보인다.¹⁶ 엘렌 판 볼데의 분석은 성서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 분석에서 주제 자체가 사랑인 아가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16 Ellen van Wolde, 윗글, 18-23.

그렇기에 판 볼데가 분석한 사랑의 모습은 아가의 사랑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아가가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을 찾아가 보도록 하자.

아가에는 사랑을 여러 형태의 은유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사랑 은유의 개념적 구조와 이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프레임 요소들을 시각화 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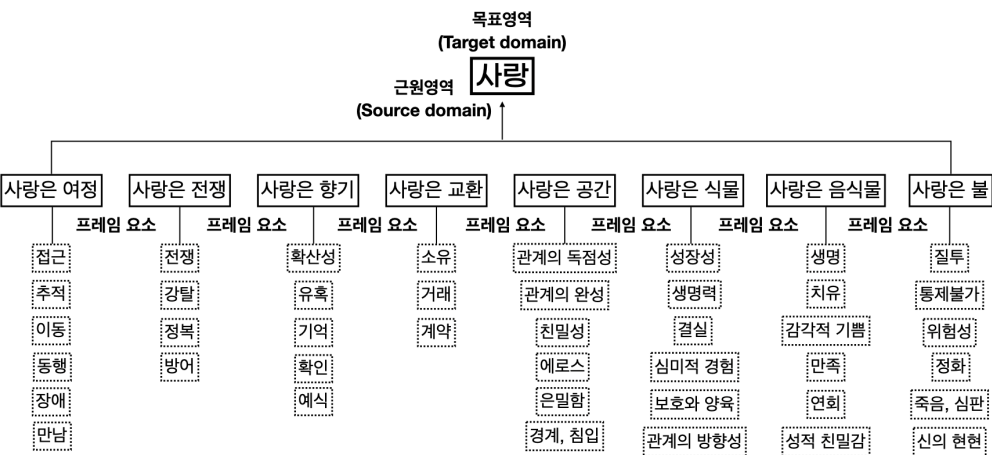


그림 1. 아가에 나타나는 사랑 은유의 개념적 구조와 프레임 요소

〈그림 1〉은 아가에 나타나는 ‘사랑’ 은유의 개념적 구조와 인지적 프레임을 도식화 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의 추상적 목표영역이지만, 텍스트 내에서는 다양한 경험 기반의 근원영역으로부터 은유적으로 개념화된다. 예컨대, 사랑은 ‘여정’처럼 접근되고, ‘전쟁’처럼 정복되고, ‘불’처럼 소모되고, ‘향기’처럼 퍼진다. 각 근원영역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인지적으로 구조화된 프레임을 내포하고 있다. 이 프레임들은 각각 특정한 의미역들(semantic roles)로 구성되며, 사랑이라는 감정 개념이

단순히 낭만적 서사나 감각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 사고 구조와 감정의 문법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위의 그림의 모든 요소들을 논문 하나에 다 포함시키기 어려워, 각각의 영역 중 몇 가지 영역만을 본문의 예를 통해 설명한다. 모든 영역을 다루지 않더라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3.1 사랑은 여정

근원영역인 여정/여행을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프레임 요소들은 목적지로 접근, 추적, 이동, 동행, 장애물, 최종적으로 목적지에서 만남이라는 요소들을 담고 있다. 여정은 목적 없이 떠나지 않는다. 사랑을 여정으로 은유한 것은 바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를 향한 강렬한 욕망 또는 부재의 인식이 출발점이 된다. 사랑하는 이를 찾는 모습은 ‘추적’과 ‘이동’, ‘탐색’의 용어들로 채워진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보세요, 이 사람이 오고 있어요 (𐤁𐤏𐤕 bā')

산을 뛰어오르고(𐤏𐤕𐤕𐤓 m' dallēg) 언덕을 깡충거리면서요(𐤕𐤏𐤕𐤓 m' qappēs)"

(아 2:8)¹⁷

연인을 만나기 위해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여 다가가는 행위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갈망과 긴박함, 그리고 생생함을 표현하기 위해, 이 구절의 이동에 관한 동사들은 모두 분사를 사용한다. 분사가 서술적

17 본 논문의 한글성경 인용은 기본적으로 대한성서공회의 「새한글성경」을 사용하되, 필자와 성서 번역상 차이가 있어 설명이 필요할 때는, 본문과 각주를 통해 필자의 해석에 대한 해설을 첨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 형태로 사용될 때, 대개 진행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연인의 부재로 만남을 갈망하는 여인의 눈앞에 그녀를 향해 그가 서둘러 오고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와와 랑데부, 만남을 갈망하는 감정을 고조시킨다.

“오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여!

들로 같이 나가요(נָלִיןָ *l'ká*). 마을에서 밤을 같이 지내요(נָלִיןָ *nālíná*).

아침 일찍 포도밭에 같이 가요(נָשְׁכִּמָּה *naškimá*).

같이 보아요, 포도나무 순이 돌아 꽃망울이 터졌는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요.

거기에서 그대에게 내 사랑 드릴게요.” (아 7:11-12 [MT 12-13])

떨어져 있는 연인이 서로를 갈망하며 사랑하는 이를 향해 온 여정은 드디어 사랑하는 이에게 도달한다. 그러나 연인과의 만남이 사랑 여정의 종착지는 아니다. 서로 만난 두 연인은 머무르는 대신 여정에 동행한다. 그들은 함께 들로 나가 하룻밤을 지낸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 ‘날리나’(נָלִיןָ *nālíná*)는 주로 ‘밤을 새다, 밤을 보내다, 묵다’의 의미로 여정의 한 일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들은 함께 유숙하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난다. 이 표현에서 사용되는 동사인 ‘나쉬키마’(נָשְׁכִּמָּה *naškimá*)는 ‘짐승의 등에 짐을 엮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에서 온 것으로, ‘새벽 일찍 나서다,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나다’ 등의 뜻으로 사용된다(창 19:2; 삿 19:9; 삼상 17:16 등). 드디어 만난 연인이 아침 일찍 서둘러 가야 하는 곳, 포도밭이 바로 목적지이다. ‘사랑은 여정’이라는 은유는 여기에서 ‘사랑은 식물’ 은유와 결합한다. 결국 여정의 목적지에는 ‘식물’의 프레임 요소들과 맞닿아 있다. 그 목적지는 결국 관계의 결실을 이루는 곳이다.

3.2 사랑은 전쟁

사랑은 전쟁으로 표현된다. 근원영역인 전쟁은 강탈, 정복/점령, 방어 등의 프레임 요소를 가진다.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 전쟁이 근원영역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랑의 열정적인 측면, 그리고 사랑을 서로의 소속감과 정복감이라는 감정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가 나를 잔칫집으로 데려갔어요.

내 위에 펠력이는 그의 깃발(**דִּגְלוֹ** *diglô*)은 사랑이었어요.” (아 2:4)

“아름다워요, 그대 나의 벗님이여, 디르사처럼요!

고와요, 예루살렘처럼요!

깃발 세운 군대처럼 위엄 있어요(**אִימָה כְּנִדְגָלוֹת** *’äyummâ kannidgälôth*).”

(아 6:4)

“이 여자 누구인가요? 아침노을처럼 내려다보네요.

보름달처럼 아름다워요. 해처럼 고결해요.

깃발 세운 군대처럼 위엄 있어요(**אִימָה כְּנִדְגָלוֹת** *’äyummâ kannidgälôth*).”

(아 6:10)

아가 2장 4절에서 ‘그의 깃발’은 문맥상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이 ‘깃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그 중 하나는 ‘데겔’이 아카드어 *diglu*(시선, 바람, 의도)에서 나온 단어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깃발’이 아닌 ‘의도, 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⁸ 그러나 구약성경 어디에도 ‘데겔’이 의도나 목적 등의 의미로 사용된 예는 없다.¹⁹ 또한 아가 6장 4절과 10절에서 같은 어근의 동사가 ‘무

18 R. Gordis, “The Root *dg*l in the Song of Song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8 (1969), 203-204.

19 이유미, 「아가」, 연세신학백주년기념 성경주석 20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76.

서운, 두려운’(새한글성경은 ‘위엄’으로 번역)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 ‘아욘’과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아, ‘데겔’은 전쟁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2장 4절은 ‘그의 깃발’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렇다면 전쟁의 맥락에서 ‘깃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데겔’은 아가를 제외하고 민수기에서만 언급되는데, 민수기에서 깃발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막사를 칠 때에 진영별로 ‘군기’와 함께 진을 치는 이야기에서 주로 사용된다(민 1:52; 2:2-3 등). 그러므로 이 단어는 군사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막사의 ‘정체’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표식이다. 더 나아가 깃발은 소속감과 보호의 의미를 지닌다. 쿰란에서 발굴된 문서인 “전쟁 두루마리”에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정의’라는 구호가 새겨진 깃발이 등장한다(1QM 4:6).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 군대가 지닌 깃발은 그 군대와 관련이 있는 신에게 소속되어 있음과 동시에, 바로 그 신의 보호와 인도 아래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²⁰ 군대는 깃발을 앞세워 진군하고, 같은 소속의 사람들이 그 깃발 아래 모인다. 곧, 전쟁 맥락에서 깃발은 소속감, 위엄, 압도적으로 결합된 힘을 암시하며, 이는 이 깃발 아래 속한 자들의 보호, 연합, 온전한 소유 등의 감정으로 확장될 수 있다. 2장 4절의 “내 위의 팔력은 그의 깃발”이라는 시적인 표현은 바로 ‘화자’를 온전히 정복하고 사로잡은 연인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3.3 사랑은 불

사랑은 불로 표현된다. 다른 근원영역들이 아가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반면, 아가에서 ‘불’에 대한 언급은 아가 8장 6-7절에

20 위의 책.

만 등장한다. 그럼에도 이 단 두 절이 아가의 사랑 은유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준다. 불 같은 사랑은 통제불능의 사랑, 질투, 위험성, 욕망, 열정, 관계적 몰입 등 어떤 의미에서 감정의 정점을 보여주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불은 극단적인 양면성을 보여준다. 전적으로 몰입한 관계, 그러나 질투와 위험, 죽음, 극단적인 욕망이 공존한다.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불은 신의 현현의 은유로 사용되기도 하고²¹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를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다.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은 집어삼키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신 4:24). 불이 신학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불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근거로 한 심판을 말하기도 하고, 동시에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아가 8장 6-7절은 ‘사랑은 불’ 은유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불이 가지는 이미지를 돕는 은유들을 함께 사용하여 이 두 절의 의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나를 새겨두세요, 도장 찍듯 그대 마음에도,
 도장 찍듯 그대 팔에도.
 사랑은 죽음처럼 강력하니까요.
 질투는 스올처럼 급힐 줄 모르니까요.
 그 뜨거움은 불의 뜨거움, 여호와와 불이지요
 (רִשְׁפֵּיהָ רִשְׁפֵּי אֵשׁ שְׁלֵהֶבֶתִּיהָ *rīšpēyā rīšpēy ʾēš šalbeṭetjā*).
 엄청난 물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없고,
 강물도 그 불을 잡지 못해요.
 누군가 자기 집 재물 다 주고 사랑을 산다 하면,
 사람들이 알볼 거예요.” (아 8:6-7)

‘사랑은 불’이라는 은유는 8장 6절 마지막 문장에서 등장한다. 이

21 출 3:2; 19:18; 24:17; 신 4:24 등.

문장은 앞서 설명한 ‘불’이 가지는 프레임 요소들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 요소들을 더욱 강조해 주는 또 다른 은유적 요소들이 문장 앞 뒤로 포진되어 있다. 이를 통해 ‘불’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적 요소인 감정적 몰입, 그로부터 비롯된 질투, 통제불능, 그리고 더 나아가 신의 감정으로의 확장까지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6절의 첫 문장에서 ‘도장’(דָּוָד *hōtām*)이 등장한다. 히브리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당신의 가슴 위에 도장처럼, 당신의 팔 위에 도장처럼 나를 두십시오!”(שִׁמְנֵי כַּחֲסֵם עַל-זְרוֹעֵי עַל-לִבְּךָ כַּחֲסֵם דָּוָד *śimnēi kaḥôṭām ‘al-libekā kaḥôṭām ‘al-z’rô‘ekā*)이다. 이 표현에서 ‘나’와 ‘도장’은 동일시 되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도장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고대 이스라엘에게 도장은 그 사람의 신원과 법적 권리를 알려주는 중요한 물건이다. 이는 창세기 38장의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에서 밤을 보내는 대가로 염소를 주겠다는 제안 대신 담보로 유다의 도장을 요구하는 장면이나(창 38:18),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 나봇과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세력들에게 보내는 이야기(왕상 21:8)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시인은 이 중요한 물건인 ‘도장’과 ‘나’를 동일시한다. 사랑하는 이에게 ‘나’를 당신의 ‘도장’처럼 생각하라는 말은 곧, ‘당신의 신원, 정체성은 나를 통해서 세워지고 이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신을 ‘규정’하는 것은 곧 ‘나’이다. 이는 ‘당신과 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피할 수 없는 사랑, 전적인 관계, 더 나아가 “사랑은 죽음처럼 강력하다”는 데에까지 이른다.

평행구문인 “사랑은 죽음처럼 강력하고, 질투는 스올처럼 곱힐 줄 모른다”는 표현은 사랑이 저항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운명 같은 것임을 강조한다. 이 평행구를 통해 사랑과 질투가 한 쌍을 이루고 죽음과 스올이 한 쌍을 이룬다. 죽음과 스올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www.kci.go.kr

사랑과 질투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질투이다. 이 질투의 감정은 결국 서로에게만 전적으로 집중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또 다른 감정이다.

이러한 감정이 바로 불 같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뜨겁고 뜨거워, 여호와의 불이라 일컬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불을 무엇으로 끌 수 있을까? 엄청난 물도 사랑의 불을 끌 수 없고, 그 사랑은 전 재산을 바쳐도 얻을 수 없다.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개념이 아가에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와 프레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맥락과 내적 긴장을 통해 도전 받고, 때로는 변화되고 확장된다. 아가에서 프레임이 때로는 재구성되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의미 확장의 양상들을 중심으로, 아가가 제안하는 새로운 사랑의 개념 구조를 살펴본다.

4. 사랑에 대한 인식전환: 리프레임

앞서 인지언어학을 사용하여 구약성경의 ‘사랑’ 감정에 관한 엘렌 판 볼데의 연구를 소개한 바 있다. 다시 정리하면, 연구자는 ‘사랑하다’라는 단어의 용례 분석을 통해 이 단어의 주어가 대부분 남성이고, 여성은 사랑을 받는 객체로 등장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구약성경의 사랑은 로맨틱한 상호성의 성격 보다는 위계적 관계 속에서 일방적인 감정이라고 결론짓는다.²² 전반적인 구약성경의 사랑 프레임은 엘렌 판 볼데가 제시한 요소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에 영향을 받아,

22 Ellen van Wolde, 윗글, 18-23.

아가의 남성과 여성의 모습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 즉, 여성은 사랑의 주체이기 보다 객체로, 수동적인 존재로, 남성은 여성 보다 위계적으로 더 위에 있는 존재로 해석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 왔다(이스라엘-야웨; 교회-그리스도). 물론 이러한 해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아가가 이러한 프레임만 보여주고 있지 않고, 전통적인 프레임을 넘어서, 새로운 프레임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아가의 해석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며, 보다 풍성하고 다층적인 해석 가능성을 제시한다.

4.1 사랑은 여정 — 리프레임

근원영역 여정에서 프레임의 변형이 나타난다. 보통 구약성경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향해 여정을 수행하는 주체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나(창 24장), 야곱과 라헬 이야기(창 29장) 등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 이삭과 야곱은 여정을 떠난다. 아가에는 앞서 3.1에서 분석한 것처럼, 남성이 여성을 향해 오는 여정을 그리는 구절(프레임)도 있지만, 동시에 여성 화자도 자신의 연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장면이 등장한다(리프레임).

“나한테 알려 주세요,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여!

짐승 떼를 어디에서(**אַיְקָה** *’eyká*) 먹이나요?

한낮에는 어디에다(**אַיְקָה** *’eyká*) 눕히나요?

내가 왜 헤매고 다니는 사람 같아야 하죠,

그대 벗들의 짐승 떼들 옆에서요?” (아 1:7)

“침대 위에서 밤마다 찾았어요(**בִּיקַשְׁתִּי** *biqqaští*).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람어요.

내가 그를 찾았지만(**בִּיקַשְׁתִּיו** *biqqaštíw*) 찾을 수 없었어요(**לֹא מָצָאתִיו** *la mazaštíw*).

www.kci.go.kr

lô' m'šā'îw).

일어날래요(**הֲיִשָּׂא** *âqumá*). 시내를 빙빙 돌아다닐 거예요(**הֲיִסְבֵּב**

âsôbbâ).

거리에서, 광장에서 찾아다닐 거예요(**הֲיִבְחַשׂ** *âbaqšá*)..." (아 3:1-2)

1장 7절에서 여성은 매우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단순히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8절에 여성에게 하는 조언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양 떼의 발자국을 따라 나가보세요.” 즉, 사랑하는 연인을 찾으려면 여인에게 발자국을 따라 가보라고 조언한다. 그녀의 ‘어디’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그녀가 그를 향해 가겠다는 분명한 표현인 것이다.

3장 1-2절에서도 여성의 적극적인 사랑 찾기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 두 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사를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명백해진다. 1절에서 여성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이를 찾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찾다’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1절에서 모두 완료형을 사용한다.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어 나오는 2절에서 동사는 전혀 다른 시제를 사용한다. 2절의 상반절은 모두 권유형(cohortative)을 사용한다.²³ 이 시제를 감안하여 본문을 보면, “일어날 거야, 시내를 돌아다녀볼 거야, 거리와 광장에서 내 사랑을 찾아다닐 거야!”라는 화자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다. 찾는 데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자신의 강한 의지로 포기하지 않고 연인을 찾아 나선다.

‘사랑은 여정’과 관련해서 이어지는 것은 결혼과 관련한 프레임이

23 이 권유형은 화자의 희망, 의도, 자기 격려 혹은 어떤 행동을 행할 결심과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표현이다. 페이지 H. 켈리, 「성경 히브리어」(류근상/허미순 옮김), (서울: 크리스찬 출판사, 1998), 140. 원제는 Page H. Kelley, *Biblical Hebrew: An Introductory Grammar*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2).

다.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나 야곱과 라헬 이야기는 결국 결혼을 위한 여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랑과 결혼이라는 주제가 왕정 배경으로 바뀌면서 변화가 시작된다. 즉, 족장들의 사랑과 결혼이라는 맥락이 아니라 ‘왕의 결혼’이라는 맥락에서 변화한다. 성경 역시 프레임 변화를 보여준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시편 45편을 들 수 있다. 이 시편은 왕의 결혼식과 관련한 노래를 담고 있다. 이 왕의 결혼식에서 이동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신부이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공주님을 사람들이 임금님께 데려다드립니다
(תִּרְבֵּל *tírbal*).

그 뒤로 공주님의 친구인 젊은 여자들도 임금님께 데려옵니다.

(מִנְבָּאִית *mínbā’ōt*)” (시 45:14 [MT 15])

그러나 실제로 이삭과 야곱의 결혼이야기와 이 왕의 결혼 이야기는 이동하는 주체가 다르지만 근본적인 프레임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동하는 자만 바뀌었을 뿐, 그 안에서 드러나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같은 프레임 안에 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되는 동사는 모두 ‘호프알’로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 즉, 신부가 임금에게 오는 것은 능동적이기 보다는 수동적인 행위인 것이다. 즉, 결국 왕의 결혼에서 이동의 주체인 신부는 여전히 수동적 객체이다. 이러한 왕의 결혼식 프레임이 아가에서 다시 한번 역전된다.

아가에는 익명의 두 연인이 등장하다가 갑자기 왕 솔로몬이 언급된다. 연인이 익명으로 등장할 때에는 목가적인 이미지의 시이지만, 솔로몬이 언급되는 부분에서는 그 배경이 왕실로 변한다. 특히 솔로몬이 등장한 본문 중에 결혼식 이동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다.

“이 여자 누구인가요?(מי זאת *mi zoʔt*) 광야에서 연기 기둥처럼 올라오
 네요.
 몰약과 유향의 향내가 나는군요.
 무역상의 온갖 향품 가루 냄새가 나는군요.
 보세요, 솔로몬의 가마예요(מִיתָתוֹ שְׁלֹמֹה *mittātô šellišlomoh*).
 60명의 용사가 둘러싸고 있어요. 이스라엘 용사들이지요.” (아 3:6-7)

이 본문을 분석하기에 앞서 첫 구절의 번역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새한글성경」에서는 ‘미 조트’를 “이 여자 누구인가”로 번역함으로써, 지시형용사 ‘조트’를 주인공 여성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뒤의 맥락과 잘 맞지 않고 해석의 혼란을 준다. ‘미 조트’는 뒤이어 등장하는 ‘보세요, 솔로몬의 가마(밋타)예요’로 대응된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저건 무엇인가?’로 번역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²⁴ ‘솔로몬의 가마’라는 것은 솔로몬이 그 안에 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가마에 타고 무장한 군인을 거느린 솔로몬은 그의 결혼식에 도착한다. 이 모습은 시편 45편에서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왕에게 오는 신부의 모습을 반전하고 있다. 결혼을 위해 오는 것은 ‘신부’가 아니라, ‘왕’이다.

이렇듯 보통의 ‘사랑은 여정’ 은유를 구성하는 남성 주도적이고 여성 수동적인 프레임은 아가에서 새로운 프레임으로 재구성-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2 사랑은 전쟁 — 리프레임

‘사랑은 전쟁’이라는 은유는 사랑의 열정, 소속감, 정복감의 감정을 보여준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전쟁은 남성의 몫이었다. 그리고 구약성

24 이에 대한 논의와 이 구절이 왜 가마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것. J. Cheryl Exum, “Seeing Solomon’s Palanquin (Song of Songs 3:6-11),” *Biblical Interpretation* 11, 3/4 (2003), 301-316.

경은 남성은 전쟁하고 정복하는 자로, 여성을 정복당하고 공격당하는 자로 프레임 되어 있다. 그러나 아가는 이러한 프레임도 리프레임하여 확장한다.

“깃발 세운 군대처럼 위엄 있어요(אֵימָה כְּנִדְנָלוֹת) 'äyummâ kannidgälôth).”

(아 6:4c, 10c)

6장에서 이 문장은 4절과 10절에서 반복하여 등장한다. 앞서 3.2에서 ‘깃발’이 주는 의미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전쟁의 맥락에서 ‘깃발’은 소속감, 위엄, 압도적으로 결합된 힘을 암시함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절에서 ‘깃발’에 비유되는 것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점이다. 여성은 깃발 세운 군대처럼 위엄이 있다고 칭송 받는다. 여성에게 백전백승의 장군의 위엄이 덧씌워진다. 이 구절에서 여성은 더이상 피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전사이며, 정복자이다. 2장 4절에서 여성이 “내 위에 펴려있는 그의 깃발”이라는 표현으로 그녀를 온전히 정복하고 사로잡은 남성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면, 동시에 남성 역시 여성을 “깃발 세운 군대처럼 위엄 있다”며, 그 역시 여성에게 정복당하고 사로잡혔음을 고백한다. 이러한 주고 받는 노래는 이 사랑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임을 매우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4.3 사랑은 불 — 리프레임

‘사랑은 불’ 은유는 욕망과 열정, 서로에게만 배타적으로 집중하는 사랑을 보여준다. 앞서 3.3에서 분석한 바 대로, 이 은유를 선보이는 8장 6-7절은 사랑의 핵심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다. ‘불’이 주는 은유의 욕망과 열정의 개념은 이 구절에 등장하는 ‘도장,’ ‘질투’와 같은 은유로 더욱 강조된다. 아가는 이 중요한 구절에서 역시 프레임의

www.kci.go.kr

확장을 꾀한다. 여성은 남성에게 “나를 당신의 도장”으로 팔과 가슴에 두라고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은 남성의 정체성은 곧 여성에게 달려 있음을 선언한다. 이로써, 남성과 여성은 위계질서 속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관계, 동등한 관계로 올라선다.

또한 ‘질투’ 역시 프레임 변화가 있다. 구약성경에서 ‘질투’의 주체는 대부분 남성이었다(잠 6:34). 사랑을 위계질서 속에서 이해하는 프레임에서 질투가 남성의 몫인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아가 속 질투의 주체는 여성이다. 여성이 남성에서 자신을 도장 삼으라 노래하며, 남성과의 뗄 수 없는 절대적 관계를 선언하고, 그 관계에서 파생하는 피할 수 없는 질투 역시 당당하게 말한다. 구약성경이 여성의 감정에 대해 거의 무관심했다면, 아가는 철저하게 여성의 감정에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측면이 프레임을 재구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지금까지 남성의 감정이 사랑의 전부였다면, 아가는 남성의 감정 뿐 아니라 여성의 감정 역시 동등하게 중요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상대방의 감정이 무시된 일방적인 사랑은 폭력과 다름 없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아가 속 또 다른 힌트는 남성이 여성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나타난다. 남성은 여성을 ‘사랑하는 이’ 대신 ‘나의 벗님’(רַעְיָתִי *ra'yāti*)이라고 부른다. 이 단어는 ‘친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에’(רֵעָה *rē'eh*)에서 파생된 여성 명사이다. 남성이 여성을 부를 때 이 표현이 사용된 예는 오로지 아가가 유일하다. 사실 이 용어의 용례 만으로도 남성과 여성의 위치는 명확하게 설명된다. 아가를 제외하고 어디에도 남성이 여성을 ‘친구, 벗’으로 지칭하는 곳이 없다. 그만큼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위치가 아니었다. 그러나 아가는 여성을 ‘벗’이라 부르며, 두 남녀 관계가 차별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인 관계임을 보여준

다.²⁵

이처럼 아가의 사랑 은유는 기존의 전통적 프레임을 단순히 반복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 문화 속에서 고정된 성 역할이나 감정 구조에 도전하며, 사랑이라는 개념을 보다 능동적이고 대등하며 심화된 구조로 재구성한다. 이는 은유의 단순한 수사적 기능을 넘어, 감정의 인지구조가 시대와 담론에 따라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은 아가에 나타난 사랑의 개념이 단순한 시적 장치나 감성적 표현이 아닌, 인지적으로 구조화된 개념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지언어학의 개념적 은유 이론과 프레임 의미론을 바탕으로, 사랑이라는 추상 개념이 다양한 근원영역을 통해 구체화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가는 전통적인 사랑 프레임을 수용하면서도, 새로운 사랑의 양상을 제시함으로써 그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리프레임의 출발점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가는 기존의 프레임을 해체하기 보다는, 그 틀 안에서 새로운 감각과 역할 구조를 도입하여 사랑 개념의 리프레임을 시도한다. 이 리프레임은 아가 해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아가 속 리프레임을 통해서 확장되는 사랑의 의미가 이 책을 해석하고 메시지를 찾는 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표면적으로 가장 종교적이지 않은 아가에 종교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이는

25 이유미, 「아가」, 23.

과거 알레고리 해석이나 신비주의적 해석, 혹은 기독교 신학적 접근과는 전혀 다르다. 인지언어학적 접근 방식은 언어가 그 사회와 문화에서 흘러 다층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아가 본문 자체에 명시적 종교 표현이 없더라도, 당시 문화와 언어 구조 속에는 종교적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바로 그러한 측면을 인지언어학 방식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아가 속 은유와 그것을 구성하는 프레임 요소들을 통해서 역사와 문화적으로 형성된 심층적 의미에 다가설 수 있다. 사랑의 은유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계약’의 개념과 맞닿을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선 동등한 인간 존재에 대한 고찰이라는 측면에서 창조신학과 맞닿아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신학적 해석은 알레고리나 신비주의처럼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문화적 흐름과 수용의 과정을 모두 다루어 근거를 만들어 제시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리프레임의 확장 개념은 현대의 젠더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줄 수 있다. 아가는 사랑이라는 개념의 정형성과 창의성, 규범성과 가능성이 만나는 공간이다. 이 텍스트를 통해 우리는 고대의 시 속에서 오늘의 인간성과 관계성을 재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아가의 사랑 담론이 단순한 고대 시문학을 넘어서, 인간 존재와 관계,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심층적 사유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해석학은 이러한 다층적 은유 구조를 통해, 고대의 텍스트에서 오늘날의 삶을 반추할 수 있는 인식의 거울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나익주, 「조지 레이코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 이유미, 「아가」, 연세신학백주년기념 성경주석 20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 잔니 바르비에로, 「아가: 새로운 번역, 입문과 주석」 (안소근 옮김), (서울: 가톨릭 출판사, 2014). 원제 Barbiero, Gianni, *CANTICO DEI CANTICI: nuova versione, introduzione e commento* (Milan: Paoline Editoriale Libri, 2004).
- 조내연, “지평 융합을 통한 인식론적 전환: 구약성서 읽기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신학사상」 200집 (2023, 봄), 9-39.
- 조지 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진보와 보수, 문제는 프레임이다」 (나익주 감수/유나영 옮김), (서울: 와이즈베리, 2015). 원제 Lakoff, George, *The All New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White River Junction, VT.: Chelsea Green Publishing, 2014).
- 줄탄 코벡세스, 「은유와 감정: 언어, 문화, 몸의 통섭」 (김동환, 최영호 옮김), (서울: 동문선, 2009). 원제 Kövecses, Zoltán, *Metaphor and Emotion: Language, Culture, and Body in Human Feel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줄탄 코브체시, 「은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은유 속 맥락의 역할」 (유석훈/김동환/나익주 옮김),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원제 Kövecses, Zoltán, *Where Metaphors Come From: Reconsidering Context in Metaphor*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페이지 H. 켈리, 「성경 히브리어」 (류근상/허미순 옮김), (서울: 크리스찬 출판사, 1998). 원제 Kelley, Page H., *Biblical Hebrew: An Introductory Grammar*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2).
- Dąbrowska, Ewa, “Cognitive Linguistics’ seven deadly sins,” *Cognitive Linguistics* 27(4), (2016), 479-491.
- De Blois, Reinier, “Towards A New Dictionary of Biblical Hebrew Based On Semantic Domains,” 「성경원문연구」 제8호 (2001), 264-296.
- Exum, J. Cheryl, “Seeing Solomon’s Palanquin (Song of Songs 3:6-11),” *Biblical Interpretation* 11, 3/4 (2003), 301-316.
- Fillmore, Ch. J., “Frame Semantics,”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lected Papers from SICOL-1981* (Seoul: Hanshin Publishing Company, 1982), 111-137.
- Gordis, R. “The Root *dgl* in the Song of Song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8 (1969), 203-204.
- Green, Joel B., and Howe, Bonnie, “Introduction,” Bonnie Howe and Joel B. Green

- (eds.), *Cognitive Linguistic Explorations in Biblical Studies* (Berlin: Walter de Gruyter, 2014), 1-6.
- Lakoff G., and Johnson, M.,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Sweetser, Eve and DesCamp, Mary Therese, "Motivating Biblical Metaphors for God," Bonnie Howe and Joel B. Green (eds.), *Cognitive Linguistic Explorations in Biblical Studies* (Berlin: Walter de Gruyter, 2014), 7-19.
- Van der Merwe, J., "Biblical Hebrew and Cognitive Linguistics: A General Orientation," Aaron D. Hornkohl and Khan Geoffrey(eds.), *New Perspectives in Biblical and Rabbinic Hebrew* (Cambridge: Open Book Publishers, 2021), 641-696. <https://books.openedition.org/obp/20315>
- Van Hecke, Pierre, *From Linguistics to Hermeneutics: A Functional and Cognitive Approach to Job 12-14*, *Studia Semitica Neerlandica*, vol. 55 (Leiden: Brill Academic Pub, 2010).
- Van Wolde, Ellen, "Sentiments as Culturally Constructed Emotions: Anger and Love in the Hebrew Bible," *Biblical Interpretation* 16 (2008), 1-24.

검색어

아가, 사랑 개념, 인지언어학, 개념적 은유 이론, 프레임 의미론, 리프레임, 의미의 확장

[ABSTRACT]

Reframing the Concept of Love in the Song of Songs: A Cognitive-Semantic Approach through Frame Semantics

You-Mee Lee

Luther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cept of love in the Song of Songs not as a mere poetic expression but as a cognitively structured construct. The primary aim is to explore how the text enables a reconfiguration of the meaning of love by expanding existing frames rather than subverting or dismantling them. The Song of Songs appropriates conventional love frames while simultaneously enriching them with new roles and sensory dimensions.

To this end, the analysis employs two central frameworks from cognitive linguistics: Conceptual Metaphor Theory and Frame Semantics. By examining how the abstract concept of love is concretized through various source domains — such as *journey*, *warfare*, and *fire* — this study highlights the mechanisms of metaphorical reframing within the text.

The research first categorizes key love metaphor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source domains and then analyzes how these frames are restructured in the text,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agency of the female speaker, the expansion of sensory imagery, and the embedded theological implicat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Song of Songs reflects Ancient Near

www.kci.go.kr

Eastern conceptions of love while simultaneously serving as a point of departure for reframing and extending those meaning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broader field of biblical interpretation by demonstrating how cognitive linguistic approaches can open new avenues for textual analysi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gender discourse and theological hermeneutics.

key words

Song of Songs/Song of Solomon, The Concept of Love, Cognitive Linguistics, Conceptual Metaphor Theory, Frame Semantics, Reframing, Extending the Meanings

투고일 : 2025년 07월 26일

심사일 : 2025년 08월 26일

게재 확정일 : 2025년 09월 01일

www.kci.go.kr